

일본의 농업개혁과 농수산물 수출 확대 전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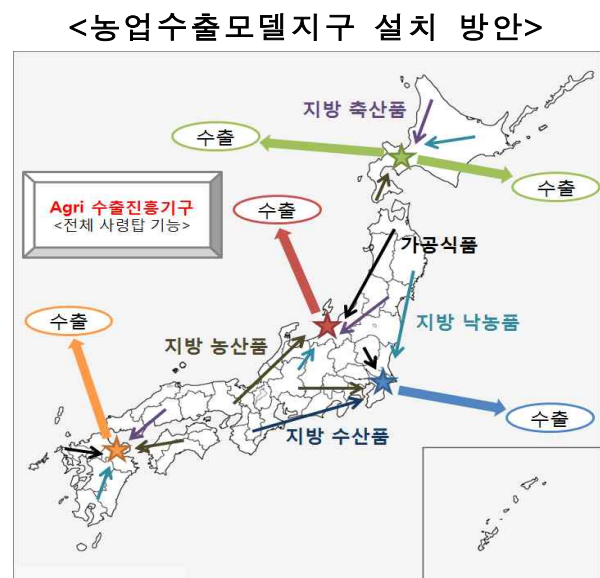
- 일본정부는 농업개혁과 농수산물의 수출 확대를 신성장전략의 핵심정책으로 설정, 6차산업화 등을 통해 2030년까지 5조엔을 수출하겠다는 목표
- 일식과 농수산물을 세계화하는 올재팬 전략으로 농업을 보호의 대상에서 경쟁을 통해 성장을 도모하는 「공격적인 농업」으로 전환시켜 TPP에 대응해 나갈 방침

□ 농업을 성장산업으로 육성

- 아베 총리는 5월 19일에 개최된 산업경쟁력회의에서 관민 펀드를 활용하여 농산물 가공사업 확대, 낙농의 자유화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발표
- 농수산물 수출을 2030년까지 5조엔으로 확대시키기 위해, 생산에서 가공·판매까지 통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6차산업화를 추진
- 아베 총리는 이번이 “농업을 개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”라고 언급하면서, 6월에 발표예정인 신성장전략에 농업개혁을 핵심내용으로 담을 방침

□ 수출 5조엔 달성을 위한 전략

- 일본산 소고기·차·수산물 등 「품목별 수출단체」 설립과 「Agri 수출진흥기구」와 같은 새로운 사령탑 기능을 창설하여 올 재팬(All Japan) 수출지원 체제를 확립
- 수출시장에서 냉장 유통시스템구축, 검역협상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
- 해썹(HACCP), 국제우수농산물인증(Global GAP), 할랄(HALAL) 등 국제규격화나 국제물류망 접속기능 강화 등을 추진하는 「수출 모델 지구」를 창설



- 對EU·HACCP으로부터 수산가공시설을 인정받기 위해 업무 담당부처인 후생노동성(보건소 등)에 수산청을 추가하여 국제인증 취득을 지원하는 등 對EU 수출지원 체제를 강화
- 구체적인 대책으로 ①산지시장의 실태를 고려하여 독자적인 등록기준을 검토, ② 생산 해역의 모니터링을 확충, ③지자체와 협력하여 표준처리기간의 설정을 검토, ④이력추적제(traceability)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 책정 등
- ‘13.12월 일본음식(和食)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것을 계기로 일식의 브랜드화, 외국인 요리사의 육성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
- 쿨재팬기구, 산업혁신기구, 민간 금융기관, 민간투자자 등이 출자하여 일식의 글로벌화를 위한 인재 육성시스템 구축, 점포개발 등을 지원하는 「일식 국제전개 플랫폼」을 구축
- 전략적으로 일식을 해외로 수출하고 일식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관련 협의회 「일식문화 해외전개·국내 승계 컨소시엄」 설립



□ 6차산업화 추진

- 6차산업화 전략은 ‘13년 발표된 성장전략에서 일본정부가 농업의 시장규모를 현재 1조 엔에서 ‘20년까지 10조엔으로 확대시키는 목표
- 6차산업화 추진을 위해 ‘13.1월에 설립한 「(주)농림어업성장산업화지원기구*」의 출자 대상을 범위를 확대할 방침
- * 농림어업성장산업화지원기구는 정부(300억엔)와 민간기업(9사, 18억엔)이 공동출자한 6차 산업화 추진 지원 관련 펀드
- 현재는 농림어업인이 주관하는 사업에만 출자토록 되어 있는데 이를 기업이 주도하는 농림어업 관련 사업에도 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출자요건을 재검토

- 식품가공기업의 기술력이나 매니지먼트력 등을 활용하여 「食의 모노즈쿠리」의 지혜를 추진하고, 식품기업의 식물공장 투자를 촉진을 지원, 농업·공업단지의 정비 등을 진행
- 낙농·축산에 대해서도 경영규모의 확대, 생산성 향상 등이 과제가 되고 있으므로 TPP 협상도 고려하여 경영의 자유화도 추진할 계획
 - 현재 많은 낙농인들이 유제품의 원료인 생유를 생산자단체를 통해 판매하고 있으나, 자유롭게 생산·가공하여 유제품기업에 판매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할 방침

□ 시사점

- 일본에는 FTA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산업을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없지만, 피해를 입은 산업이나 기업을 구제하는 제도보다는 피해를 입기 전에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사전 육성·지원제도를 정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차이
 - 아베 정부의 농업개혁 슬로건은 ‘공격적인 농림수산업’의 실현으로 보호 농업에서 수출 농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전략
 - 한편에서는 TPP교섭 과정에서 피해를 당하는 산업이나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「일본판 무역조정지원제도」의 도입도 논의되고 있음
- 우리나라의 ‘김장’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록되었고, 최근 드라마 효과로 해외에서 유명해진 치맥(치킨과 맥주) 등 한국의 식문화의 세계화도 가속화되고 있으므로 식품가공·농업에 기업들의 진입을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
 -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채소류의 상당부분이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농산물 무역에서도 대일 전략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
 - * 국가별 채소류 수출 비중(‘13년) : 일본 59.7%, 미국 8.9%, 홍콩 5.3%, 중국 3.8%
 - 특히 파프리카, 고추, 배, 홍삼, 대두유 등 우리가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브랜드화시켜 생산자와 기업이 공동으로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비즈니스 환경 정비가 요구됨

<참고자료>

산업경쟁력회의 배부자료(2014.5.19), 닛케이신문(2014.5.20)